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25.10.31, 한-EU연구협력센터>

○ 이집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10.22)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두 번째로 공식 가입

- 협정 서명은 10월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 이집트 정상회의에서 진행됨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EU-이집트 협력이 수자원 관리, 지속 가능 농업, 식량 안보 등 핵심 연구 분야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임을 강조
- ‘24년 3월 시작된 협상은 이집트의 인권 침해와 불법 이민 억제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EU(자하리에바 집행위원)와 이집트(압델라티 외무장관)는 공동성명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

○ 집행위, 연구 보안 강화 조치 발표(10.28)

- 집행위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유럽 연구보안 컨퍼런스에서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 자하리에바는 유럽 전역의 연구보안을 보호함으로써 학술적 자유와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연구 시스템 보호,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
- 제안된 신규 조치로 유럽연합 집행위 내 ‘연구보안 전문센터’ 설립, 연구자들이 국제협력 시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적격성 심사 플랫폼’ 구축, 회원국이 자국 연구기관의 보안 회복력을 점검할 수 있는 공동 평가 방법론 도입이 있음

○ EU 회원국, 유럽경쟁력기금 내 지역 균형 규정 두고 입장 엇갈려(10.23)

- 호라이즌 유럽 참여확대국(widening countries)들은 고소득국의 자금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유럽경쟁력기금(ECF) 내 지역 균형 지원 요구
- 반면 독일이 이에 반대 입장을 주도. 지역 균형 규정은 결속기금이 담당해야 하며, 경쟁력 기금의 우수성 원칙이 흔들릴 경우 전체 예산 구조 및 EU의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경고

○ (기타) ▲EU 후보국, 연구개발 정책 통합 강화에 합의(10.23) ▲유럽특허청(EPO), 유럽 내보다 역외와의 특허 공동출원 더 활발해(10.23) ▲집행위, ERASMUS+ 2014~2023년 평가 보고서 발표(10.23)